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3. 6. 9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미 주

○ 아르헨티나 승무원, 비행기에 '폭발물 있다' 거짓 협박 전화

- 6.4 언론은 아르헨티나 항공 소속 女승무원이 지난달 21일 부에노스 아이레스 에세이사 국제공항에서 美 마이애미로 출발하려던 자사 항공편에 '폭탄이 설치되어 있다'는 거짓 협박 전화를 걸었다가 붙잡혔다고 보도
※ 同 항공편은 9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 후 운항 재개

유 럽

○ 유럽 EBA, '자금세탁 방지' 규제 지침 발표

- 6.1 언론은 유럽 은행감독기관(European Banking Authority)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암호화폐 거래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, 오는 7일 同 지침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
※ EBA는 同 지침을 통해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

○ 스웨덴, 반테러법·나토 가입 반대 시위

- 6.5 언론은 스웨덴이 나토가입을 반대하고 있는 튀르키예를 달래기 위해 반테러법을 마련한 가운데, 스톡홀름에서 해당 법안과 나토 가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고 보도

아 · 태평양

○ 아프가니스탄, 차량 폭탄테러로 부지사 등 2명 사망

- 6.6 언론은 아프가니스탄 북부지역 파이자바드에서 폭발물을 실은 차량이 바다크산쎄 부지사가 탑승한 차량으로 돌진하는 테러가 발생해 부지사와 운전기사 등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다고 보도
※ 이번 공격의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, 최근 탈레반 행정부 관리들을 표적으로 한 ISIS의 테러가 지속 발생 중('22.4월 광업부장관, '22.12월 바다크산쎄 경찰청장 등)

중 동

- 이란·이라크, 강력한 테러 대응을 위해 ‘공동투쟁’ 결의
 - 6.1 외신은 이란과 이라크가 올해 3월 안보 협력에 관한 첫 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, 양국 국경(1,548km 공유) 인근에서의 테러 및 무기밀수 등 범죄에 보다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보도
 - ※ 이란 내무부장관은 회담 후 “양국 관계가 역사상 가장 좋은 상황”이라고 강조
- 이스라엘, 이집트의 ‘테러 공격’에 대한 합동조사 요구
 - 6.4 언론은 「네타냐후」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3일 이스라엘·이집트 국경에서 발생한 총격戰(이스라엘 3, 이집트 1 사망)에 대해 ‘테러’로 규정,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며 이집트에 합동조사를 요구했다고 보도
 - ※ 이집트는 아랍권 최초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 체결 후 테러단체 대응에 협력 중인데, 同 사건을 양국 국경에서 종종 발생하는 마약반입 사건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

아프리카

- 우간다, 軍기지 탈환 작전 중 알샤바브 공격으로 軍人 54명 사망
 - 6.4 「요웨리 무세베니」 우간다 대통령은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*에게 빼앗긴 軍기지를 되찾는 과정에서 아프리카연합 평화유지군 일원으로 소말리아에 파견된 自國 군인 54명이 사망하였다고 발표
 - * 아랍어로 ‘청년들’을 의미하는 同 단체는 소말리아를 이슬람근본주의 국가로 바꾼다는 목표로 남부·중부에서 활동하며, 주로 치안력이 약한 지방에서 게릴라식 공격 감행
- 남아공 무장괴한, 호스텔 투숙객에 총기를 난사해 8명 사망
 - 6.6 언론은 지난 3일 남아공 콰줄루나탈州 호스텔에서 무장괴한들이 투숙객을 향해 총기를 난사해 8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으며, 同人들은 8건의 살인 및 4건의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도주 중이라고 보도
 - ※ 남아공은 매년 약 2만명의 살인사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도 가정집에 총기를 난사하여 일가족 10명이 사망하는 사건 발생

나이지리아, 보르노주 마을 총기난사 테러

- '20.6.9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르노주 포두마 콜로마이야 마을에서 무장괴한들이 총기테러를 자행, 주민 81명 사망, 13명 부상
 - 탱크와 총으로 무장한 테러범들은 종교 설득을 이유로 마을 주민들을 모아 놓고 무장해제 시킨 후, 6시간 동안 무차별 총기 난사
 - ※ 同 테러범들은 총기테러를 자행한 후, 마을 대표·여성·아이 등 7명을 납치하고 소 400여마리를 탈취
- 나이지리아 정부는 同 테러가 “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지부(ISWAP)에 의해 자행되었다”고 발표
- 한편, 나이지리아 동북부지역에서는 '09년부터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지부(ISWAP)에 의해 4만명이 사망하였고 220만명의 난민이 발생하는 등 테러정세 불안이 지속
 - ※ 보코하람의 탄생지인 동북부(보르노주)와 기독교 신자가 많은 북부 카노시는 보코하람의 주요 공격 타깃

테러 단체

< 보코하람(Boko Haram) >

- (결성) '02년 「무함마드 유수프('09.7 사망)」가 서구식 민주주의 폐지를 주장하며 조직
 - ※ 테러단체 지정 : 영국('13.7), 미국('13.11), 캐나다('13.12), UN('14.5)
- (연계세력) ISIS, 바쿠라그룹
- (활동지역) 나이지리아(요베·카노·바우치·보르노·플래토주 등 중·북부), 카메룬 북부, 차드 서부, 니제르 남동부 일대
- (활동수법) 對정부 게릴라戰, 마을 습격 및 민간인 무차별 학살
- (참고사항) '15.3 前 지도자 「아부바카르 세카우」가 ISIS에 충성을 맹세하였으나, '16.8 ISIS가 「알 바르나위」를 신임 지도자로 임명하자 내분이 발생, 이후 「아부바카르 세카우」('21.7 사망)의 보코하람과 「알 바르나위」의 「ISIS-서아프리카지부」로 분열